“대행 선사, 한국불교 혁신 이끈 선지식”

혜유 스님, 서강대 종교硏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관법 통한 생활 수행 강조
남녀 구분 없이 제자 받아
경전 참뜻 의미로 풀어내
“현대인 맞는 수행 가르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썼던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이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학술 발표가 이뤄졌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혜유 스님〈사진〉은 11월 5일 ‘동아시아의 현대종교운동’ 을 주제로 열린 서강대 종교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행 선사가 보인 한국불교 혁신 요소에 대해 발표했다.

‘현대불교에서 대행 선사의 혁신’ 을 주제로 발표한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전반에 나타난 혁신 요소에 대해 살폈다.

혜유 스님에 따르면 대행 선사가 한국불교에 보인 혁신 요소는 △생활선 주창 △경전 한글화 △성별 초월 제자와 다양한 법회 △한국불교 세계화 △불교 현대화 등 5가지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의 선사상은 전통 한국불교의 선맥을 계승하고 있지만, 틀에 갇혀있지는 않았음에 주목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일상생활과 수행이 나눠지지 않는 ‘생활 속 수행’ 을 강조했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는 관법 수행을 통해 생활 속 끊임없는 수행을 강조한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참나에 귀의하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사의 관법 수행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선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비구니 스님이 비구 제자를 받은 점도 한국불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비구는 남녀 구분없이 출가 제자를 두지만, 비구니는 여성 제자만 받아 왔다. 하지만 대행 선사는 1986년 처음 비구 제자를 받아들였고, 금왕 광명선원을 비구 수행처로 삼았다.

혜유 스님은 “비구 제자 스님들은 광명선원뿐만 아니라 문경 · 청주지원, 해외 캐나다 토론토 지원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 권리 향상에 대한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다. 대행 선사는 이미 비구 · 비구니 스님의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서 평등 정신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행 선사는 출 · 재가의 차별도 두지 않았고, 남성들의 신행을 독려함으로서 다양한 법회들이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선사는 1980년 청년회, 1982년 어린이회를 결성했으며, 1990년에는 거사들로 이뤄진 신행 조직인 법형제 법회를 창립했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는 여성 신도뿐 아니라 남성, 청년, 어린이 등 모두가 생활 속 수행을 하도록 독려했다”면서 “선사의 노력은 산중불교, 여성 중심의 불교, 기복불교로 각인된 한국불교를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불교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대행 선사의 노력은 ‘경전 한글화’ 로 이어졌다. 선사는 경전 번역을 단순 직역이 아닌 뜻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을 이끌었다.

혜유 스님은 “1970년대 중반부터 대행 선사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글자풀이를 한 것이 아닌 한마음 사상을 기반해 뜻으로 풀어냈다”면서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경전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모든 국내외 지원에서 의식예불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불의식이 조금 자유로운 군부대 법회와 교도소 법회에서는 대행큰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천수경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행 선사는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불법(佛法)의 세계화와 과학화와 포교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선사는 법문 번역을 통한 불교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1997년 한마음선원 내 번역부를 만들었고, 이는 현재의 국제문화원으로 발전했다. 국제문화원은 대행 선사의 법문집을 번역 · 출간해 2005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96년 심성과학연구원을 설립했으며, 현재 한마음과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2002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통해 관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04년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05년 한마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현 교육의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원들을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혜유 스님은 “불교의 혁신은 승가 내에서 운동(movement)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일반 대중들을 위한 대중화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면에서 대행 선사의 혁신적인 가르침과 사고는 현재 한국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불교사硏, 16일 집중세미나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을 분석하는 학술 발표회가 열린다.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는 11월 16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대안’ 을 주제로 제25회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초빙교수가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불교철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가 ‘불교명상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가 ‘불교예술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교수,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신광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과 분석을 통해 종교의 본질인 ‘친절’ 과 ‘소통’ 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국내 유일본 확인

동국대 ABC사업단, 경주 기원정사 문헌 조사 중 발굴

‘삼매참법’ 중권 처음 확인
기원정사만 全卷 모두 소장
아카이브 구축해 일반 공개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중권. 경주 형산 기원정사 소장돼 있으며, 국내 유일본이다. 이는 동국대 ABC사업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법화신행사에 중요한 문헌 자료가 동국대의 조사로 확인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경주 형산 기원정사(舊 왕룡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존불(아미타불, 약사불, 석가모니불)에서 출토된 복장유물 가운데 문헌류 30여종에 대해 조사와 촬영을 실시했고, 고려와 조선전기의 문헌을 다수 확인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서는 원(元)이 간행한 〈금강반야바라밀경〉과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묘법연화경삼매참법〉상중하권,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선종영가집〉 언해본 등이 확인됐다. 이들 경전은 보물급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된 경전 중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중권은 특히 가치가 높다.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중권은 국내 유일본이며, 상중하 전권이 소장된 곳은 기원정사가 유일하다. 〈삼매참법〉의 상권은 경주 기림사와 김민영 소장본 두 권이, 하권은 구인사 소장 한 권이 전해지는데, 이들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기운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삼매참법〉은 고려 산긍의 저술로서 〈법화경〉 28품을 12단으로 구성해 법화삼매 수행을 제시한 것”이라며 “ 중국, 일본과 다른 고려만의 법화삼매 수행의 방식이 담겨있는 주석서로서 고려 법화신앙사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ABC사업단은 문헌 존재만 알려져 있는 희귀 경전을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일반에 제공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ABC사업단은 “〈법연화경삼매참법〉 전권을 영인해 각계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한국불교전서 보유편(제15책)에 고려문헌의 하나로 수록하기 위해 후속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ABC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전국 사찰에 소장된 문헌을 전수조사하고 촬영해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경북 불교문화재 유출 현황 살피다

경북도, 10월 29일 세미나… 용흥사 명문와 기증도

경북 지역 불교문화재들의 반출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주관으로 10월 29일 구미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경북 북부권 불교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전국 개별 사찰 소장 문화유산을 조사 정리한 ‘사찰재산대장’ 과 현재 사찰별 성보문화재 실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해외로 반출된 성보의 환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성순 동국대 교수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찰재산대장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미’ 주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상주지역 사찰의 유출문화재 연구’ , 최은령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예천지역 사찰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 안동 대원사 등안 스님의 ‘안동지역 불교문화재 실태와 활용’ 등이 발표됐다.



최선일 위원이 10월 29일 경북도 주최 세미나에서 일본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용흥사 명문기와를 기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선일 위원은 일본 경매에서 구입한 ‘상주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를 경북도에 기증해 눈길을 끌었다. 기와에는 용흥사 증건 연도(순치 4년)와 시주자의 이름이 양각돼 있어 당시기와 제작기법과 사찰의 건립연대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3년에 걸쳐 ‘사찰재산대장’ 발간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 중에 있다.

신성민 기자

통일시대에서 종교교육 역할 · 과제 학술적 조명

종교교육학회 22일 추계대회

통일시대 종교교육 역할과 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11월 2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덕암세미나실에서 ‘통일 시대의 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와 종교, 그리고 개벽’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일시대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발표들이 이뤄진다.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이찬수(서울대)의 ‘대화로서의 평화: 대화의 자기초월성과 평화교육’ △김용해(서강대)의 ‘평화를 위한 국가와 종교의 사명’ △이재봉(원광대)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 △김경이(가톨릭대)의 ‘통일시대의 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문화간 대화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형수(가톨릭대), 황수경(동국대), 오지섭(서강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